

눈오는 地圖

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것 처럼 窓밖에 아득히 깔린 地圖 위에 덮힌다.

房안을 도라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壁과 天井이 하얗다. 房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歷史처럼 훌훌이 가는것이나, 떠나기前에 일러둘말이 있든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가는 곳을 몰라 어느거리, 어느마을, 어느집을,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나, 네 쫓고만 발자욱을 눈이 작고 내려 덮혀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一年 열 두달 하냥 내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一九四一、三、十二、

눈오는 지도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힌다.

방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나,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지붕 밑, 너는 내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나, 네 쫓고만 발자욱을 눈이 자꾸 내려 덮혀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1941.3.12.